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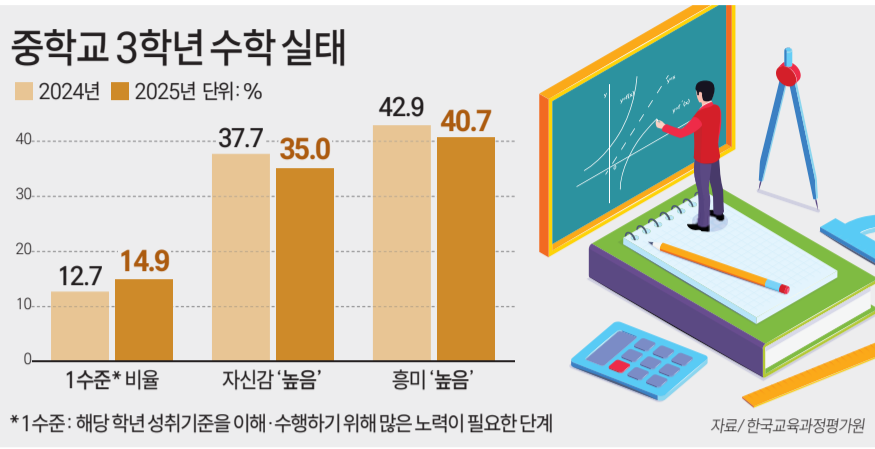
중3 수학 '노력 필요' 학생 늘었다... 기초학력 '경고등'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취약 학생 비율 14.9% 수학 자신감·흥미도 동반 하락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기초학력 취약 학생 비율이 1년 새 100명 중 13명꼴에서 15명꼴로 늘었다. 전체 학업성취도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학교 수학 하위권 확대와 수학 자신감·흥미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학습 결손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학이 이전 단계 학습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교과인 만큼, 초등 단계부터 결손을 확인하고 학습부진과 기초학력 미달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중3 수학 '노력 필요' 단계 증가

한국교육과정평가가 23일 발표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수학 1수준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전년(12.7%)보다 2.2%p 포인트(p) 오른 수치다. 평가는 학업성취도를



1~4수준으로 나눠 산출한다. 4수준은 해당 학년 성취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3수준은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이다. 2수준은 성취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이며, 1수준은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중3 수학 1수준 비율은 ▲2023년 13.0% ▲2024년 12.7% ▲2025년 14.9%의 흐름을 보였다. 100명 중 13명 수준이

던 수학 기초학력 취약 학생이 15명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체 성취도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 자신감·흥미도·태도 지표 하락

성취도뿐 아니라 학습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특성에서도 중학교 수학의 경고 신호가 나타났다. 중3수학에서 자신감이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0%로 전년(37.7%)보다 2.7%p 낮아졌다. 반대로 자신감이 '낮음'이라는 응답은 25.9%로

전년(23.9%)보다 2.0%p 높아졌다.

수학 흥미도 낮아졌다. 중3 수학 흥미 '높음' 비율은 40.7%로 전년(42.9%)보다 2.2%p 낮아졌고, 흥미 '낮음' 비율은 24.5%로 전년(22.5%)보다 2.0%p 높아졌다. 수학의 가치가 '낮음'이라는 응답도 16.1%로 전년(14.0%)보다 2.1%p 늘었다.

학교생활과 자기조절학습 지표도 낮아졌다. 중학교 수업 준비 및 참여도 '높음' 비율은 39.4%로 전년(41.7%)보다 2.3%p 낮아졌다. 중학교 학업적 자기효능감 '높음' 비율은 52.9%로 전년(55.4%)보다 2.5%p 낮아졌고, 고등학교는 59.1%로 전년(62.9%)보다 3.8%p 낮아졌다.

◆ "초등부터 결손 확인해야"

중3 수학 하위권 확대는 중학교 이전 단계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뤄져야 중학교 수학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초등 단계부터 학생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험은 단순히 줄을 세우기 위한 장치라 아니라 이해도를 파악하고, 배운 내용을 다시 꺼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학습부진과 기초학력 미달은 구분해야 한다"며 "기초가 부족하지만 교실 안에서 집중 지원을 받으면 따라갈 수 있는 학생과, 학습장애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단계부터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부진 학생은 교실 안에서 집중 지원하며, 미달 학생은 전문적 지원 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고교생이 푼 블랙홀 난제... SCI 학술지 게재

서울과학고 학생 3명·권용준 교사 중력장 방정식 열역학 제1법칙 도출

고등학생들이 교내 연구 활동을 통해 물리학 분야 SCI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대학이나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실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지도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권용준 물리교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이 SCI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모던 피직스 디(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D)'에 게재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장방정식에서 도출한 제약 조건 없는 블랙홀 열역학 정식화(A Constraint-Free Formulation of Black Hole Thermodynamics from the Field

Equations)'다. 공동저자는 베이진, 안건우, 장근영 학생이며, 교신저자는 권용준 교사다. 학생들은 2026년 2월 서울과학고를 졸업했다.

이번 연구는 블랙홀 열역학과 중력장 방정식의 관계를 다뤘다. 블랙홀이 열역학 제1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중력장 방정식에서 직접 유도하려는 시도는 물리학계의 연구 과제 중 하나였다.

서울과학고는 이번 연구가 교내 정규 교육과정과 연구 활동을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R&E(Research & Education), 졸업논문, 창의융합특강 수업 등을 거쳐 연구 주제를 발전시켰고, 교내 박사급 교원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완성했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정교하고 수준 높은 연구가 서울과학고 학

생들에 의해 수행됐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학생들의 역량과 지도를 평가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권용준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연구 활동 지원이 결실로 이어졌다"며 "학생들을 지도하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베이진, 장근영 학생은 "블랙홀 열역학 분야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살피고 새로운 해석을 더하기는 과정이 도전적이었다"며 "연구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값진 배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태일 서울과학고 교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이 교내 교사들과 협력해 연구에 몰두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확장하고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마약류 관리 위반 15곳 적발

에토미데이트 취급기관 77곳 점검

서울시가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한 의료기관 77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대체제로 불법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지난 2월 행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에토미데이트 공급이력 있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재고가 등록된 의료기관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저검 인력 50여 명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실제 재고량과 NIMS상 재고량 일치 여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보관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서울시

점검 결과 15개 의료기관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은 4건, 실제 재고량과 시스템상 재고량 불일치는 1건이었다.

서울시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경고, 과태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재고량과 NIMS상 재고량이 맞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내달 행정개편 맞춰 우편번호 체계 손질

영종·검단구 새 번호 부여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부터 도입된 5자리 우편번호의 바탕이 된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보다 작은 크기로 국토를 세분화한 행정 단위다. 인천시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 각 자치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우정사업본부, 물류업계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거쳐 행안부에 최종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2일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아 확정했다.

인천시는 개편에 따른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물포구와 서해구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로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부여해 사용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변경 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내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에서 누구나 상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변경 전후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 우편번호 변경여부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체국, 소방서, 관세청을 비롯한 필수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국가기초구역 정비에 단순히 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의 행정체제가 혼선 없이 시민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주소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짐 / 19:57

6월

24일 (수)

음력 : 5월 10일

수도권 날씨

19 ~ 2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이출 지수: ■■■■■■■■■■

연천 15/29

동두천 15/28

백령도 18/24

파주 15/28

가평 14/27

서울 19/29

양평 16/28

인천 19/29

수원 18/28

용인 18/28

평택 17/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 관영매체, 美 기업 제재... "대만에 무기 판매한 기업들"

▲미국 트럼프, 콜롬비아 대선 승리 우파 후보에 "강력한 관계 구축하자"

/사진 뉴스시스

▲中 왕이, 이란 고위당국자와 회담... "미·이란 종전 MOU 이행 지지"

▲종전 MOU 체결했지만... 미국인 69% "이란 핵 위협 안 없어져"

▲이란銀 총재 "해제될 동결자산, '美 농산물' 구매 의무는 없다"

▲푸틴·루카센코, 곧 '젤렌스키 최후통첩' 대응 논의